



막을테면 막아봐

2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레안드로가 강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 샌프란시스코·시애틀과 협상

클리블랜드 닉스 영입
추신수 입지 좁아져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34·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추신수(25·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같은 날 반갑지 않은 소식에 애를 태우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인 ESPN은 지난 20일(한국시간) 자유계약선수(FA)인 좌완 투수 데이비드 웰스(44)가 샌디에이고와 1년 간 연봉 300만달러와 인센티브 40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웰스 계약 불발시 친정팀 샌디에이고 잔류 가능성이 접혀졌던 FA 박찬호는 다른 동지들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박찬호의 에이전트 스킷 보라스는 앞서 '4~5개 팀과 협상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말했다고 샌디에이고 캐빈 타워스 단장도 웰스 잡기에 실패하면 차선으로 박찬호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디에이고는 웰스의 영입으로 제이크 피비, 크리스 영, 그렉 매덕스, 클레이 헨슬리에 마지막 선발진의 한 자리를 채웠다. 박찬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나 시애틀 매리너스 등과 계약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도 소속팀 클리블랜드가 FA 베테랑 좌타자 트롯 니슨(33)을 1년간 연봉 300만달러에 영입함에 따라 메이저리그 재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찬호>



<추신수>

닉스는 지난 1996년 보스턴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한 팀에만 몸담으며 9년 간 통산 홈런 133개 등 타율 0.278, 523타점을 기록한 베테랑 외야수. 추신수와 같은 좌타자이면서 우익수로 포지션이 겹쳐 지난 해 상대 팀 우완 투수 때 출장하는 '반쪽 주전'이었던 추신수의 설 자리가 크게 좁아졌다. 추신수는 지난 해 플레트시스템에도 49경기에서 홈런 3개 등 타율 0.280, 22타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닉스의 가세로 스프링캠프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비스, 삼성 꺾고 원정 6연승

99-83 승리... 올 시즌 상대전적 4전 전승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서울 삼성을 꺾고 최근 원정경기 6연승을 내달렸다. 모비스는 21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6~2007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삼성과 경기에서 99-83으로 이겨 올 시즌 상대 전적 4전 전승의 우세를 이어갔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4전 전패로 무릎을 꿇었던 아픔도 올 시즌 맞대결 전승으로 조금이나마 달랬다. 또 원정 경기 6연승은 올 시즌 팀 원정 경기 최다 연승 기록이다. 팽팽하던 승부는 3쿼터 중반부터 모비스의 3점포가 불을 뿜으며 기울기 시작했다. 모비스는 58-55로 근소하게 앞서던 3쿼터 중반 양동근의 3점슛과 이창수의 속공으로 63-55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이후 모비스는 김동우와 이병석의 연속 3점슛이 적중해 69-59, 10점차를 만들었고 삼성이 69-64까지 쫓아오자 이번에는 이병석과 양동근이 릴레이 3점포를 꽂아 75-64로 점수 차를 벌였다. 4쿼터에서도 모비스는 85-74로 앞선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김동우가 서장훈의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 3개를 모두 넣고 다시 이어진 공격에서 속공까지 성공시켜 90-74를 만들어 승부를 갈랐다.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창원 LG가 전주 KCC를 86-64로 대파하고 최근 3연승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2일(월)
▲PGA투어 소니 오픈 FR(09:00·SBS 스포츠)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KB국민은행-신세계)(16:50·SBS스포츠)
▲호주오픈 테니스 Day8(17:30·MBC ESPN)

삼성화재 '포지션 파괴' 돋보이네

레안드로 레프트·장병철 라이트 기용 대한항공 제압 7연승



현대캐피탈 후인정 앞세워 상무 꺾고 6연승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대한항공을 꺾고 궤조의 7연승을 달렸다. 삼성화재는 2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괴물 용병' 레안드로 다 실바(16득점)와 센터 고희진(11득점), 레프트 신진식(10득점)의 활약을 앞세워 보비(8득점)가 체력저하로 부진한 대한항공을 3-0(25-22, 25-23, 25-22)으로 제압했다. 좌측의 7연승 행진을 벌인 삼성화재는 11승1패로 2위 현대캐피탈(9승3패)과 승점 2점차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굳게 지켰다. 반면 대한항공은 전날 현대캐피탈과 3라운드 첫 경기에서 2-3으로 역전패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연패를 당했다. 삼성화재는 보비의 고공강타를 막으려고 레안드로를 처음으로 레프트로 기용하고 라이트에는 장병철을 선발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구사했다. 삼성화재는 경기 초반 보비가 부진한 틈을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잡았다. 1세트 들어 보비의 잇단 공격범실에 편승해 11-5까지 앞선 삼성화재는 레안드로와 신진식의 강타로 2-3점차 앞서가다 22-18에서 보비의 연속 서브득점에 23-22까지 추격당했지만 대한항공 김학민과 신영수의 잇

단 범실로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에는 레안드로의 득점력이 떨어져 대한항공의 거센 추격에 휘말렸다. 삼성화재는 시소게임을 펼치다 22-22에서 레안드로와 신진식의 잇단 후위공격으로 세트포인트를 만든 뒤 신진식의 서브범실로 한점을 내줬지만 고희진이 속공을 성공해 세트스코어 2-0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삼성화재는 3세트 5-6에서 신진식의 시간차 공격과 센터 최태웅의 다 이펙트킬 등으로 내리 3점을 뺏아 8-6으로 역전한 뒤 고희진의 속공과 블로킹, 레안드로의 강타가 활발히 터져 줄곧 앞서가다 24-22에서 신진호가 시원한 속공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현대캐피탈은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좌우 날개' 후인정(13득점)과 송인석(10득

점을 앞세워 '불사조' 상무를 3-0(25-22, 25-22, 25-16)으로 완파하고 6연승을 달렸다. LG도 구미에서 캐나다 출신 용병 프레디 윈터스(19득점)와 센터 하현웅(9득점)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전력을 3-0(25-23, 25-19, 25-20)으로 누르고 7승(5패)째를 켰다. 여자부에서 현대건설이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와의 맞대결에서 5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25-15, 23-25, 15-25, 25-21, 15-11)로 진땀을 거뒀고, GS칼텍스는 '용병' 안드레아나(24득점)의 고공포를 앞세워 KT&G를 3-0(25-22, 25-21, 29-27)으로 눌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

☎ 060-700-3658

30만원대 히터가 무릎 꿇었다!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가격, 난방비, 소음, 냄새, 그림자까지 30만원대 히터를 능가하는 벽난로형 히터가 99,000원



가격가 99,000원 (부가세 포함)

문의전화 080-717-5950